

재외동포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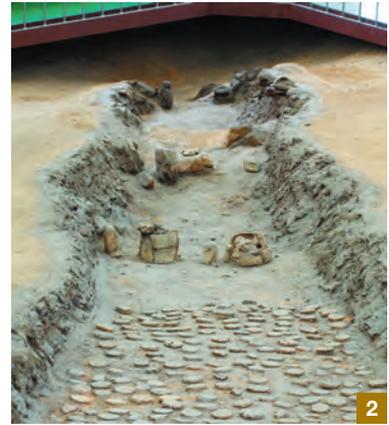
2016



- 특집 _ 제15차 제주 세계한상대회... 모국과 동반성장 모색
- 화제 _ 박 대통령, 4강외교 마무리... 중리 '사드설득' · 한미일 '북핵공조'



절제미의 승화, 순백의 조선백자 달항아리 유교를 근간으로 한 조선의 이상과 세계관 담겨



1. 보물 1437호인 백자 달항아리, 조선 18세기 전반, 높이 41cm.
 2. 경기도 광주 조선백자 요지. 도요지는 그릇이나 자기를 만들어 굽던 가마터를 말한다. 광주 일대에는 도자기를 굽는 데 필요한 흙이 나오며, 나무와 물이 풍부하다. 서울과 가깝고 한강을 이용한 운반의 편리성으로 인해, 조선 후기 130여 년 동안 285개 소의 가마터가 이 일대에서 번창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근간으로 왕실의 품위와 선비의 격조가 미술품에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문기(文氣)가 흐르는 품위와 격조는 조선백자의 미적 특성이기도 하다. 17~18세기 영·정조 연간에 제작된 조선백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시기에 조선은 왜란(1592~1598)과 호란(1636~1637)의 피해를 극복하여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회복하였으며, 문화적으로는 조선의 제2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조선의 관요에서는 순백자, 청화백자, 철화백자, 동화백자 등 다양한 종류의 백자가 제작되었다. 이 가운데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백자 큰 항아리인 백자대호(白磁大壺)가 바로 '백자달항아리'이다. 17세기 후반에 나타나 18세기 중엽까지 유행한 이 백자는 보름달처럼 크고 둥글게 생겼다 해서, 1950년대에 백자달항아리라는 이름을 얻었다.

달항아리를 조선백자의 정수로 꼽는 이유는 절제와 담박함으로 빛어낸 순백의 빛깔과 둥근 조형미에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도자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 달항아리만의 특징이다. 조선

은 '예(禮)'를 중시하는 유교 사회였다. 예를 실천하기 위해 선비들이 사욕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절제였다. 백자에는 조선 시대 선비들이 추구하는 절제와 청결, 담박함, 그리고 '안분지족'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백자는 청자보다 기술적으로 한층 진보된 자기이다. 먼저 철의 함량이 전혀 없이 깨끗하게 정선된 질흙으로 성형된 후 청자보다 높은 온도인 1천250도 이상에서 번조된다. 이때 가마 내 불의 온도를 높이려면 많은 땀감이 필요했다. 조선 왕실은 조선 초에 백자를 왕실의 자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백토와 땀감이 많아서 백자 생산에 적합한 경기도 광주에 국영 공장인 관요(官窯)를 설치하고 백자를 제작했다. 달항아리는 높이와 몸체의 최대 지름이 거의 같아서 마치 보름달처럼 둥근 몸체를 이루며, 보통 높이가 40cm를 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큰 항아리를 한 번에 굽어서 몸체, 어깨, 구연까지 물레로 성형하기는 매우 어려워서 상반부와 하반부를 따로 만들어 접합했다. **창**



표지 이야기

국내 기업과 한상(韓商) 간의 상생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한 '제15차 세계한상대회'가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활약하는 1천여 명의 한상과 국내 중소기업인 등 3천500여 명이 참가했다.

- 02 한국의 열** 절제미의 승화, 순백의 조선백자 달항아리
유교를 근간으로 한 조선의 이상과 세계관 담겨
- 04 특집** 제15차 제주 세계한상대회... 모국과 동반성장 모색
세계 57개국 한상과 국내 중소기업인 등 3천500여 명 참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사흘간 '비즈니스·네트워킹 한마당'
- 06 화제** 박 대통령, 4강외교 마무리... 종려 '사드설득'·한미일 '북핵공조'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 사드 배치 불가피"
- 08 기획** '동토의 땅'에서 조국 잊지 않은 사할린 한인
이중징용, 이산, 무국적 차별 달고 3~4세 성공담으로 이어져
- 10 한민족 공감** 추석 맞아 각국 동포사회 푸짐한 행사
"한민족 정체성과 민족 자긍심 키우고 현지인과 교류 기회"
- 11 동포정책 Q&A** "이제는 더치페이", '김영란법 시대' 본격 개막
재외동포도 부정 청탁할 경우 처벌 대상
- 12 글로벌 코리아** 모국에 띄운 편지, 책으로 펴낸 재미동포 로버트 김
'나는 워챗이다' 가이드북 발간한 한상 김대순 씨
미 대학교수직 중단하고 군에 자진 입대한 박주원 씨
- 14 동포소식** '제97회 전국체전'에 17개국 1천300명 동포 선수 참가 외
- 17 동포 캘린더** '만주 한인 독립운동 한눈에'... 독립기념관, 선양서 전시회 외
- 18 지구촌통신원** 남미 칠레 천문대에서 한국 망원경 지키는 고승원 연구원
"우주 관측에 최고의 명당, 지구인 살 수 있는 외계행성 찾고 싶다"
- 19 우리말 배워봅시다**
- 20 동포문학** 할아버지의 전화
김재엽 _ 중국 _ 2015 동포문학상 중고등부문 장려상
- 22 OKF 뉴스** "재일동포 역사 배웠다" 세계한인차세대 도쿄대회 외
- 24 고향의 맛·멋** 숯불에 구운 천하임미... 서천 흥원항의 전어
고소한 맛이 절정인 가을 대표 별미
- 26 재단공지**

발행인 : 주철기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의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15차 제주 세계한상대회... 모국과 동반성장 모색

세계 57개국 한상과 국내 중소기업인 등 3천500여명 참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사흘간 '비즈니스·네트워킹 한마당'

국내 기업과 한상(韓商) 간의 상생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한 '제15차 세계한상대회'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새로운 변화와 도약, 한상 네트워크'라는 슬로건으로 29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57개국에서 활약하는 1천여 명의 한상과 국내 중소기업인 등 3천500여 명이 참가했다.

제주도립예술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개회사, 오세영 세계한상대회장의 대회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환영사, 황교안 국무총리의 축사, 오준호 카이스트 대외부총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도지사 주최 환영만찬이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회식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세계한상대회는 국내외 한민족 경제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인턴십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치하했다.

주철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한상대회는 한민족의 결속된 힘을 보여주는 좋은 자리"라며 "대회를 통해 한상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한상과 모국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오준호 대외부총장은 '로봇 기술과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람은 이를 잘 활용할 때 가치가 극대화되며 상호 공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개회식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세영 대회장은 "이번 대



국내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개오디션인 '한상&청년, Go Together!'에 참가한 청년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회에서 한상은 모국 청년 110명을 인턴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한상이 뽑고 싶은 청년 인재의 첫 번째 조건은 외국서 뼈를 문겠다는 각오와 근성"이라고 강조했다.

컨벤션센터 3층의 실내 전시장에서는 기업전시회 오프닝 행사도 열렸다. 중소기업 특별관, 아이디어 상품관, 글로벌 식품관, 수출 우수기업관, IT 기업관, 뷰티·이미용관, 스타트업관 등 259개 전시 부스가 29일까지 운영됐다.

"혁신으로 선제 대응하라", '창조 콘퍼런스'

대회 이튿날인 28일에는 한상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의 성공 노하우를 전하는 '한상 창조 콘퍼런스'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한상과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 콘퍼런스에는 업체를 대표하는 대기업 임원이 강사로 나섰다.

첫 연사로 나선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무인 공장 신설, TV용 OLED 개발, 세계 최초 계단형 배터리 개발 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과의 비전 공유, 현장 중심 경영, 고정관념 타파, 철저한 준비 덕분이었다"며 "비즈니스에 위기와 난관이 닥치는 것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므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조언했다.

'급변하는 시대 본질에 집중하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연에 나



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성공하는 기업은 변화할 수밖에 없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먼저 바꾸는 게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즈니스 라이프사이클은 점점 짧아져 해오던 일을 더 잘한다고 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게임의 룰을 먼저 이해하고 혁신을 통한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콘퍼런스에는 한상과 국내 기업인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을 들은 최분도 베트남 PTV대표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경영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다.

한상, 청년 채용 규모 최대 110명 예상

재외동포재단은 세계한상대회 기간인 29일 한상 기업들이 국내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개오디션인 ‘한상&청년, Go Together!’를 진행했다.

49개 한상기업이 참여한 이 행사에는 사전 접수에 6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이날은 우선 12명을 대상으로 오디션이 이뤄졌다. 나머지 청년들은 10월 4일 서울시 종로구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디션을 받았다. 한상들은 두 번의 면접을 통해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들은 30초 동안 자신의 강점과 비전, 계획을 발표하고 한상들의 질문에 답했다.

송창근 인도네시아 KMK스포츠그룹 회장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채용했다”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응원했다.

지난해 오디션에서 취업에 성공한 정병모 씨는 “수직적 조직문화를 강조하는 한국과 달리 직원을 귀하게 여겨서 자부심을 품고 일한다”며 “한상기업에 근무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가 깊어진 것이 큰 수확”이라고 자랑했다.

해외 창업 사례자로 나선 김한송 미국 비스트로 요리 대표는 “흠수저라서 못 한다는 것은 변명”이라며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경험을 쌓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조언했다.

12명의 참가자는 각자 개성 있는 화법과 프레젠테이션 등으로 박수를 받았다.

이날 오디션에서 재일동포 기업인 해피식품(대표 진영섭)의 인턴사원으로 채용된 김성환 씨는 “지난해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의 추천으로 도전했는데 일본에서 경험을 쌓을 기회가 생겨 무척 기쁘다”고 즐거워했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국내 청년 취업난의 해결 방안으로 한상기업의 인턴 채용 공개오디션을 진행했다”며 “해외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한상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점차 채용 인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기업 전시회와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약 1억1천872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한상들은 오디션 이후 열린 폐막식에서 대회기간 모금한 5천만 원을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다문화가정·조선족 자녀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학생 92명에게 전달했다.

내년의 제16차 한상대회는 경남 창원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

1. 제15차 세계한상대회 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2. 세계한상대회에서는 중소기업 특별관, 아이디어 상품관, 글로벌 식품관, 수출 우수기업관, IT 기업관, 뷰티·이미용관, 스타트업관 등 259개 전시 부스가 운영됐다.
3. 제주 세계한상대회는 기업 전시회와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약 1억1천872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9월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 전체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 4강외교 마무리... 중리 ‘사드설득’ · 한미일 ‘북핵공조’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 사드 배치 불가피”

다 자정상회의의 참석 등을 계기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연쇄 4강 외교(9월3~7일)가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동방경제포럼(EEF) 참석 등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9월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데 이어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으로 이어진 외교전은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과 모두 만난 것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외교 일정이었다. 이번 정상 외교 활동은 북한이 국제

사회의 압박·제재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위협 수준을 계속 높이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있는 시점에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은 한·러·한중 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가운데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북핵 불용’에 있어선 한목소리를 이끌어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자멸 초래”(박 대통령)·“고립 심화”(오바마 대통령), “폭거”(아베 총리)라고 경고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자칭 핵 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미국과 함께 유엔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다. 이런 점에서 미·중·러의 북핵 원칙 확인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한

유엔 차원의 조치를 취해나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북 제재·압박 정책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시 주석은 박 대통령에게 역대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현재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대해 “계속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일본의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일 및 한미일 차원의 강력한 대북 공조 방침을 확인했다.

나아가 한반도 주변 강국의 대북 공조 목소리는 이른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로 동북아에서의 외교적 균열이 드러난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사드는 북핵 대응수단”(박 대통령)과 “미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시 주석)는 발언으로 드러난 정상 차원의 사드 대립에도, 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공조 방침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도, 애초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으로 북핵 공조가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이번 4강 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드 갈등 속에서도 한중 정상이 관계 발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경제협력과 북핵 문제를 앞세우면서 사드 이견을 우회하기도 했다. 다만 정상 차원의 회담에서 동북아에서의 사드 균열이 확인되면서 이견 해소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외교적 과제다. 사드 배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반대 압박 수준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한미중간 사드 논의와 함께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의미하는 ‘확장억제’ 카드를 거론한 것은 앞으로 사드 외교 방향 차원에서 주목된다. 이는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자위권적 조치’라는 논리로 미국과 함께 중국·러시아를 계속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가 계속 진전될 경우 사드 외에 추가적인 조치도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줄 것을 압박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핵·미사일은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

박 대통령이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변 4강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 노력을 펼친 가운데 북한은 9월 9일 전격적으로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 소식에 3시간여 앞당겨 귀국길에 오른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년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인 북한 핵실험은 국제 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9월 12일 청와대로 여야 3당 대표를 초청해 북한 안보위기와 관련해 초당적 협력과 내부 단합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배치)안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1. 중국 항저우에서 9월 4일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월 6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대화하고 있다
3.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4. 박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9월 7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동토의 땅’에서 조국 잊지 않은 사할린 한인 이중징용, 이산, 무국적 차별 딛고 3~4세 성공담으로 이어져



광복 이후 사할린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하염없이 배를 기다리며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했던 사할린주 코르사코프항의 '망향의 언덕'. 62년 만에야 위령탑(사진)이 세워지면서 이곳 일대가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러시아의 연해주 동쪽, 일본 홋카이도 북쪽에 있는 사할린은 겨울이 길고 혹독한 추위로 인해 유배지로 여겨질 만큼 사람이 거의 살기 어려운 섬이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북위 50도를 경계로 남부지역을 차지한 이후 탄광채굴 등 자원개발과 함께 한인 등 이주민을 들여왔다. 1932년 한인 거주자가 5천200여 명까지 늘어났으나 소련의 스탈린 정권은 1937년 10월 18일 극동지역 한인과 함께 1천155명의 사할린 한인들을 배에 태워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낸 후 다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후 사할린에는 일본령인 남사할린에만 한인이 거주하게 됐으나 또 다른 시련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1938년 4월 발효한 국가총동원 체제를 강화, 강제징용 형태로 한인들을 남사할린으로 동원했다. 강제동원 이전에 자의로 사할린에 건너갔던 한인들도 현지에서 징용당했다. 1939년부터 4년간 남사할린에 투입된 한인 노무자는 1만6천여 명으로 36개소의 탄광을 비롯해 벌목, 제지공장 등에 배치됐다.

전쟁 막바지인 1944년 패전의 기운이 짙어지면서 수송선 부족과 연합군 공격으로 사할린에서 생산한 석탄을 본토로 가져가기조차 어렵게 되자 일제는 사할린 한인들을 또다시 일본 본토로 강제동원했다. 한 번도 기가 막힌 징용을 두 번이나 겪는 '이중징용'을 당한 것이다. 이들은 노동조건이 사할린보다 위험하고 열악한 본토 26개 탄광으로 보내졌고 이 중에는 지옥 섬으로 악명높은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도 포함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중징용을 당한 한인인 3천191명이며 1천여 명은 사할린에 가족이 있는 가장이었다. 이중징용은 가족 이산, 가정 해체의 아픔까지 안겨줬다.

사할린 한인들은 1945년 해방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절망감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패전에 따른 불안감과 공황에 시달리던 일본인들이 한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수십 명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른 사실이 피해자 가족과 이웃 등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일본의 패전 이후 1946년의 '소련 지역에서의 철수에 관한 미·소협정' 등을 통해 약 30만 명의 일본인이 거의 전원 사할린으로부터 철수했지만, 당시까지 일본인으로 규정됐던 사할린 한인들은 철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제



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한인 숫자는 4만3천여 명에 달한다. 해방 후 살아남은 남한 출신 한인 2만3천여 명은 차별대우의 설움을 받으면서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고국에 돌아가겠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1960년대 이후 사할린 잔류 한인의 귀환을 호소하는 동포들의 목소리가 한국과 일본, 사할린에서 이어졌다. 1958년 일본인 부인과 함께 사할린에서 철수한 박노하(1912~1988)씨 등은 도쿄에서 '사할린여류 귀환자 동맹'을 결성해 귀환 희망자 명단을 작성하고 사할린 동포와 한국 가족 간의 서신 교환을 위한 교량 역할을 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정권이 도입한 페레스트로이카(개혁 개방) 정책과 '88서울올림픽' 개최, 1990년 한·소 수교 등이 이어지면서 사할린 한인 귀환은 급물살을 탔다. 1989년 한·일 양국 적십자사 주도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4천346명이 고국의 품에 안겼다.

외교부 집계에 따르면 사할린 거주 한인인 2014년 말 기준 2만5천246명이다. 사할린 전체 인구가 60만 명이 채 안 되는 규모임을 고려하면 한인의 비중은 적지 않다. 주도 유즈노사할린스크에 19만 명이 거주하고 한인도 이곳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 영주 귀국자를 제외하고 사할린에 남아있는 한인 1세대는 600여 명, 80대 이상 고령이라 한해가 다르게 1세대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사할린 한인인 3~4세로 이어지고 있다. 3세부터는 한국말을 거의 몰라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시급한 과제이다. 부모의 교육열 덕분에 사할린 사회에서 성공한 한인들이 많다. 강영복 사할린 경제법률정보대학 총장, 유즈노사할린스크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홍희 노인회장 등이 꼽힌다. 재정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말방송의 김춘자 사장과 새고려신문

의 한인 3세 배워토리아(한국명 배순신) 사장이 우리 말과 글,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인의 식습관은 사할린의 음식 문화도 바꿔놓았다. 김치 담가 먹는 것은 물론이고 고사리 미역 무침과 데친 문어와 오징어 등은 러시아인도 즐겨 먹는 음식이 됐다. 최근에는 케이팝 영향으로 한인 3, 4세는 물론 러시아인 젊은 층 사이에서도 한국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할린 한인사회가 당면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역사기념관' 건립이다. 2006년 유즈노사할린스크에 한인문화센터가 세워져 한인 동포 단체 여러 곳이 들어섰지만, 강제동원 등 한인 이주역사와 한인 정체성을 알릴 공간이 없는 실정이다.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자를 해방 당시 사할린 거주 또는 출생자로 제한하고 2인 1가구 조건을 붙인 것도 재고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다. 조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한인 2세도 많고 무엇보다 가족과 헤어져서 사는 이산의 아픔은 더는 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사할린으로 끌려가 하루 열두 시간씩 일하면서 노임은 강제로 '우편저금'에 넣었는데 일본은 이 돈을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할린 징용 한인 피해자들의 한 맺힌 호소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장**

1. 사할린에 있는 한인 유일 신문사인 '새고려신문'사에서 30년간 사진기자로 활동해 온 이예식(67)씨. 그는 사할린 한인 동포 1세대의 애환을 카메라에 담아 왔다.
2. 새고려신문 이예식 기자가 찍은 동포 1세대의 삶. '사할린의 채소 파는 아낙네'.
3. 새고려신문사 편집진 가운데 앉은 사람이 배워토리아 사장.
4. 고국 땅 밝은 사할린 동포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해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도 귀국하지 못했던 한인 1세대들이 2015년 12월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 사할린 한인 3세대들이 부산 우민족서로돕기운동 초청으로 4박 5일간의 역사문화기행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올해 8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추석 맞아 각국 동포사회 푸짐한 행사 “한민족 정체성과 민족 자긍심 키우고 현지인과 교류 기회”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각국 동포들은 다양한 행사를 하고 고국의 풍습을 즐기는 한편 거주국 외국인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렸다. 브라질 상파울루 시에서는 한가위를 맞아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자선단체인 ‘뷰티플 마인드 채리티(BMC)’가 뜻깊은 자선 콘서트를 열었다. 9월 14일 밤 8시부터 상파울루 시내 한 박물관에서 열린 콘서트에는 우리 정부와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 한인 동포, 브라질 문화예술계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영국 런던에서는 관광명소 영국박물관에 ‘아리아리랑’이 올려 퍼졌다. 9월 15일 오전 영국박물관 3층 한국전시실에서 국악팀 정기악회 단원들이 1시간여 동안 진행한 한가위 축제 공연에서 다. 장고, 피리, 대금, 아쟁 등의 연주에 맞춰 흘러나온 정선아리랑, 태평가, 진도아리랑 등은 전시실을 찾은 이들의 흥겨움을 한껏 끌어올렸다. 관객들은 공연이 끝나자 ‘앙코르’를 요청하는 호응을 보였다. 미국 뉴저지의 대남부뉴저지한인회는 추석을 앞둔 9월 10일 캠프 시내 한 행사장에서 ‘2016 추석 대잔치’를 열어 한인 2세, 외국인 이웃과 함께 한민족의 전통 풍습을 되새겼다. 한인회 관계자는 “추석 대잔치는 뉴저지 남부 한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행사”라며 “동포들이 한민족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키우고, 현지인과의 교류하며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태국 방콕의 주태국한국문화원은 추석을 앞둔 9월 13일 전통식품 강좌를 열었다. 태국 현지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한국인 강사 윤대숙 씨 지도로 송편과 유과, 잡채 등을 직접

만들면서 한국의 명절 문화를 체험했다.

일본 니가타 현에서는 9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한일 한가위 축제’가 열렸다. 주니가타 총영사관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는 한일 우호를 다지기 위한 K팝 경연 대회,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난타 공연, 김치 담그기 체험 등이 이어졌다. 남태평양 섬나라인 피지에서 한가위를 앞두고 9월 10일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하는 축제를 열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한국에서 찾아간 참가자와 현지 고려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모국의 명절을 지냈다.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연대 주최로 9월 16~19일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등에서 열린 ‘고려인 한가위 축제’에서는 내국인 참가자가 고려인들과 만나 한복을 기증하고 만찬을 함께 했다. 한편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8일 재외동포재단이 ‘세계 한인의 날’(10월 5일)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KBS 전국노래자랑 세계대회’ 본선이 방영되어 내국민과 재외동포가 함께 즐기는 추석 명절의 의미를 더해졌다. **[장]**

1. 로스앤젤레스(LA) 한국교육원은 9월 7일 교육원 옥외 주차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한인 동포 자녀들이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한가위 민속놀이 체험 마당’을 열었다.
2. 추석을 앞두고 9월 13일 태국 방콕의 주태국한국문화원에서 전통식품 강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송편과 유과, 잡채 등을 직접 만들면서 한국의 명절 문화를 체험했다. 사진은 잡채 요리 방법을 배우는 태국인들.
3. 일본 니가타 현에서 9월 10일부터 이틀간 ‘한일 한가위 축제 in 니가타 2016’ 행사가 열렸다.

“이제는 더치페이”, ‘김영란법 시대’ 본격 개막 재외동포도 부정 청탁할 경우 처벌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9월 28일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이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 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해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 전반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법 적용을 놓고 혼선이 적지 않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제회복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영란법 추진 경과는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처음 태동이 됐다. 김 전 위원장은 1년여가 지난 2012년 8월 16일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했고,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2013년 8월 5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 척결 대책의 하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만인 지난 5월 9일 시행령을 발표했고, 7월 28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으며 9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부정청탁 금지 부분을 보면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이들 14가지 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는다. 반면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금품수수 금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다.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1회 100만 원 이하, 1년 3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는지,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이하, 1년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있다. 반면 직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회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의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등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사유를 뒀다.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의 범위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3·5·10 규정’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보면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장**

Q&A

▶ 김영란법은 재외동포에도 적용되는가?

이 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는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외국인 모두에 적용(속지주의)되고,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도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 내국인에게 적용(속인주의)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과 주재원들은 법의 적용을 받으며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공직자 등 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되고 있어 법 내용 숙지와 주의가 요구된다.

GLOBAL KOREAN

모국에 띄운 편지, 책으로 펴낸 재미동포 로버트 김

“많은 모국의 동포가 뜨거운 지지와 후원 보내준 것 감사”

스파이 혐의로 옥고를 치렀던 재미동포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76)의 책 출간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상제리제센터 킨벤션홀에서 열린 ‘로버트 김의 편지’ 출판기념회는 200명이 넘는 지인과 후원자들로 성황을 이뤘다. ‘로버트 김의 편지’ (온북미디어출판그룹)는 김 씨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뒤 2005년 11월 2일부터 2014년 5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이메일로 모국에 띄운 편지 425통 가운데 80여 통을 엮은 것이다. 김 씨는 “오랫동안 세상과 떨어져 있다 보니 우리말도 어눌해지고 컴퓨터도 잘 다룰 줄 몰랐는데, 많은 분의 도움으로 고국을 향한 ‘러브레터’를 매주 보낼 수 있었고, 이렇게 책으로까지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9월 11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김 씨는 “벌써 20년이나 흘렀네요. 체포된 뒤 10년 동안은 갇혀 지냈고, 그 뒤 8년간은 모국과 동포를 걱정하는 글을 썼고, 그 뒤론 건강을 해쳐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이렇게 회복해 다시 모국을 찾게 되니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그 일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1남 2녀)도 술한 고초를 겪었지요. 아직도 제 가슴속에는 큰 응어리가 맺혀 있습니다.” 로버트 김이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된 사건은 미국과 한국에서 엄청난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켰

다. 다른 우방들은 알고 있는 정보를 동맹국인 한국에 제공한 것을 간첩 행위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격론이 펼쳐졌고, 모국을 도우려다가 곤경을 겪고 있는데 정보를 넘겨받은 한국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 정부의 태도가 섭섭하지 않았는지 묻자 “당시에는 서운한 감정을 떨치기 힘들었다”면서도 “이제는 이미 다 지난 일이어서 잊어버렸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나와 일면식도 없는 많은 모국의 동포가 뜨거운 지지와 후원을 보내준 것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김 씨는 1966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퍼듀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거쳐 해군정보국(ONI)에서 정보분석관으로 근무하다가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 백동일 대령을 통해 한국에 기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징역 9년에 보호관찰 3년형을 받았다.



‘나는 위챗이다’ 가이드북 발간한 한상 김대순 씨

“8억 명 사용하는 위챗은 중국 온·오프 최대 비즈니스 플랫폼”

“중국 온·오프라인 시장을 선도하는 최대 비즈니스 플랫폼은 ‘위챗’(WeChat)입니다. 채팅·오락에서부터 의료·교육·교통·쇼핑 결제까지 모든 상거래가 가능합니다.” 중국 선전과 광둥 지역에서 비즈니스 정보지 ‘라이프’를 발행하며 최근 ‘나는 위챗이다’를 저술한 김대순(40) 대표는 9월 29일 “8억 명이 가입한 위챗은 단순한 채팅앱을 넘어서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세계한상

대회’에 참석했다. 중국에서 15년간 잡지를 발행하며 시장·업계 동향 등 최신 비즈니스 정보를 접해온 김 대표는 위챗의 파괴력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다. 지난해 선전에서 열린 위챗 세미나에 참석해 성장 가능성에 감탄한 그는 즉시 잡지 발행과 광고사업을 위챗과 연계시켰고 주변에도 권했다.

“중국의 변화와 발전 속도는 그 안에 사는 사람도 눈이 돌아갈 만큼 빠릅니다. 소비패턴과 유행이 자고 나면 바뀐다는 우스갯소



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챗을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군요.” 지난해 여름부터 사업하는 틈틈이 책 쓰기에 매달렸다는 그는 “위챗이 중국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며 “위챗을 활용한 비즈니스로 돈방석에 오른 창업자 등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도 모았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중국 경제 상황이 완만해졌다지만 온라인 시장은 연간 20% 이상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기업인들은 명함에 위챗에 가입된 기업 공식계정이나 QR(인식)코드를 새겨 넣는 게 대세일 정도”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부속실에서 근무하다 선전으로 이주

한 김 대표는 현지에서 광고로만 도배되는 무가치의 현실을 보고 한중 간에 믿을 만한 정보매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2001년 ‘라이프’를 창간해 업계에서 많은 신뢰를 얻었다. 그는 현재 선전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기업가들의 모임인 아시아태평양걸출여성연합회의 부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선전지회 부회장, 선전 한국상공회 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미 대학교수직 중단하고 군에 자진 입대한 **박주원** 씨

“대한민국 청년에게 군 복무는 소중한 경험”

“명예, 권력, 돈, 시간, 기회 등 얻고 싶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내려놓았다. 나 자신을 훈련병과 이등병 신분으로 낮췄다.” 육군 2사단 17연대 소속 박주원(31) 일병은 지난봄 병무청에 보낸 수기에서 이렇게 썼다. 나이 서른한 살에 이제 겨우 이등병 계급장을 땀 박 일병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박 일병은 미국 뉴욕주 스키드모어 칼리지 철학 교수다.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음에도, 삶의 의미를 찾아 군 복무를 자원했다. 병무청은 8월 31일 박 일병과 같이 병역 의무가 없어도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 중인 청년들의 사연을 담은 수기집 ‘대한사람 대한민국 2016’을 발간했다. 박 일병은 여덟 살에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케냐로 건너가 11년 동안 살았다.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그는 운동화 바닥이 닳으면 타이어 조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덧발 줄 아는 케냐 소년이었다.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한 박 일병은 28살에 미국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스키드모어 칼리지 교수가 됐다.

미국에서 탄탄한 자리를 잡고 꿈을 펼칠 수 있게 된 그가 군 입대라는 선택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청년에게 군 복무가 소중한 경험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대학교수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해

해야 하는 직업이다. 군에서 여러 사람을 사귀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 군 생활을 통해 습득한 경험들은 전역 후 미국 대학 교수로 돌아갔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부대에서 동료들과 거친 운동을 하다가 아킬레스건 파열로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험도 박 일병에게는 정신의 자양분이 됐다.



군 복무를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박 일병은 이렇게 말한다. “군 복무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축구나 농구 게임에 있는 ‘하프타임’ 또는 ‘작전타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입대 전까지 전반전을 열심히 살아왔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작전을 세우자. 한 발자국 물러서서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되돌아보자.” **창**

‘제97회 전국체전’에 17개국 1천300명 동포 선수 참가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충남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과 주변 시·군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체전’에 17개국에서 1천300여 명의 재외동포 선수가 참가했다. 세계한인체육회장총연합회(회장 권유현)는 “전국체전 참가를 위해 호주선수단은 9월 3일 후원의 밤을 열었고, 독일선수단은 9월 25일 출정식을 하는 등 각국에서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선수단은 축구, 탁구, 테니스, 골프, 볼링, 스쿼시, 태권도 등 7개의 정식종목에 출전했으며 일부는 검도 등 시범종목과 개인종목에도 참가했다.

개최지인 충청남도는 각국 선수단이 우정을 나누고 친교를 다질 수 있도록 10월 10일 재외동포 선수단 초청 만찬을 열었다. 세



10월 7일 오후 충남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97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서 재외동포 관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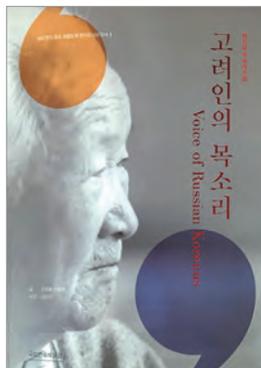
계한인체육회장총연합회는 대회 기간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17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정기 총회도 개최했다. 재외동포의 전국체전 참가는 1953년 재일동포 선수단을 시작으로 매년 이어져 왔으며, 재외동포로만 구성된 경기를 별도로 치러 순위를 매기고 있다. 지난 대회에서는 일본이 우승, 중국 준우승, 인도네시아가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각국 한인체육회는 모국 동포를 돕거나 장학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필리핀대한체육회는 10월 6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충남도의 추천을 받은 필리핀 출신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20명에게 망고장학금을 전달했다. 미국대한체육회와 홍콩대한체육회는 개최지의 보육원과 양로원을 위문 방문했다.

연해주 한인 동포의 삶은... ‘고려인의 목소리’ 발간

국립민속박물관은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살아가는 한인 동포의 생활 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현지 조사의 성과를 담은 보고서 ‘고려인의 목소리’를 발간했다. 연해주는 1860년대부터 한민족의 이주가 이뤄진 지역으로, ‘고려인’은 러시아에 사는 한민족을 지칭하는 말이다. 연해주에 사는 고려인들은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했으나, 이후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일부가 연해주로 돌아왔다. 소련이 해체한 뒤에는 고려인들이 일자리를 얻고 사업을 하기 위해 경제 호황이 이어진 연해주로 몰려들기도 했다.

현재 연해주의 고려인 인구는 3만 명으로 추정되며, 조사가 시행된 우수리스크는 약 1만5천 명이 살아가는 고려인의 중심지다. 조사 보고서에는 연해주 고려인의 이주 역사를 비롯해 고려인의



국립민속박물관이 펴낸 러시아 우수리스크 현지조사 보고서 ‘고려인의 목소리’ 표지.

결혼식과 환갑잔치, 추석 풍습, 우수리스크에 있는 고려인 단체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또 당근으로 만든 김치인 ‘카레이스카야 마르코비’, 잔치국수와 비슷한 ‘국시’, 콩나물 볶음인 ‘질곰채’, 된장과 시래기를 넣고 끓인 국인 ‘시락장무리’ 등 고려인의 음식이 소개됐다. 이와 함께 다양한 연령층의 고려인 25명을 만나 진행한 심층 인터뷰도 실렸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11월에 우수리스크 고려인역사관에서 조사 자료를 활용해 특별전을 열 계획이다. 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는 “연해주의 고려인들은 저마다 아픈 역사를 간직한 채 생활하고 있다”며 “고려인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한민족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다른 민족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 사위’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 한인 사위 맞았다

한국 사위, ‘호서방’으로 불리는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인 사위를 봤다. 호건 주지사의 한국계 부인 유미 여사의 막내딸 줄리(30) 씨가 9월 17일 아나폴리스 주지사 관저에서 한인 2세인 김태수(31) 씨와 화촉을 밝혔다. 호건 주지사는 2004년 ‘싱글맘’ 유미 여사와 결혼했고, 줄리 씨는 유미 여사의 셋째 딸이다. 유미 여사의 첫째와 둘째 딸은 각각 미국인과 결혼했다. 줄리 씨는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에서 직장생활 중이며, 뉴욕 출신인 남편 김 씨는 같은 대학 선배로 도요타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선배 사이로 알고 지내다 몇 년 전 일본연수 기회를 통해 사랑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은 호건 주지사와 유미 여사의 친인척 15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호건 주지사가 사비로 결혼식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번 선출직 도전 끝에 2014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호건 주지사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호건 주지사는 같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의 한국계인 부인 유미 여사의 막내딸 줄리 씨가 9월 17일 아나폴리스 주지사 관저에서 한인 2세인 김태수 씨와 화촉을 밝혔다.

은 해 6월 립프종 3기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를 극복해낸 정치인으로도 유명하다. 척수액 검사를 비롯한 각종 치료를 받은 그는 5개월 후인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믿기지 않지만, 오늘로 나는 100% 암 완치 상태”라고 선언했다. 그는 특히 미주 한인 이민 113주년인 올해 1월 13일, 주 정부 차원에서 ‘미주 한인의 날’을 선포했다. 당시 그는 암 투병 과정에서 쾌유를 위해 성원해 준 한인사회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대목에서 눈물을 보였으며, 우리말로

“나 스스로 한국 사위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6 캐나다 한인상’에 민병훈 · 조성준 · 최기선 · 이호윤 씨

캐나다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와 단체에 수여하는 ‘캐나다 한인상’ 올해 수상자로 민병훈 갤러리아수퍼마켓 대표, 조성준(사진) 온타리오 주 의원, 최기선 전 한인여성회장, 노턴 온타리오의대 교수인 이호윤 박사 등이 뽑혔다. 캐나다 한인상 이사회(이사장 신숙희)는 민 대표와 조 의원, 최 전 회장을 공로상 부문에, 이 박사를 문화 부문에, 캐슬뷰 양로원한인봉사회(회장 박주희)를 단체상에 각각 선정해 9월 20일 발표했다. 민 대표는 ‘사랑의 김치 나누기’, 도산재단의 산타펀드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한

인 및 비한인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한인장학재단을 꾸준히 후원하면서 갤러리아 장학사업을 만들어 학생들을 지원했다.

8선의 토론토 시의원인 조 의원은 최근 캐나다 한인 이민 역사상 처음으로 온타리오 주 의원에 당선됐고, 토론토동물원 이사장



‘캐나다 한인상’ 이사회는 올해 수상자로 조성준 온타리오 주 의원 등 4명과 캐슬뷰 양로원한인봉사회를 선정했다.

시절 한국 정원 설립에 기여했다. 청소년 봉사단체인 ‘글로벌 유스 리더스’를 창설해 차세대 양성에 앞장서는가 하면 한인노인회 등을 돕는데도 나섰다. 한인여성회 3대 회장 출신인 최 전 회장은 여성회가 자선단체 자격을 잃었을 때 이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고, 온타리오 주 한인 간호사협회 창립도 주도했다. 이 박사는 램지레이크 제약회사를 설립했으며, 현재 학생 지도와 약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서드버리 한인회장을 지냈고, 한글학교를 설립했으며 지역 민속문화협회 이사로도 봉사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캐슬뷰 양로원한인봉사회는 70여 명의 한인 노인을 위해 복지시설을 마련하고 한식 제공을 비롯해 위로 공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시상식은 11월 18일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러 총선서 고려인 의원 배출... 이르쿠츠크 주서 세르게이 텐 재선

러시아 제7대 국가두마(하원) 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에서 고려인 출신 의원이 또다시 배출됐다. 러시아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소속으로 제6대 하원 의원을 지낸 고려인 3세 세르게이 텐(40)이 이번 총선에서도 당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텐 의원은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주의 셸레호프스크 선거구에서 통합러시아당 후보로 출마해 40%가 넘는 득표율로 20% 이하의 득표율에 머문 다른 2명의 경쟁자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텐 의원은 당선이 확정된 9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유권자들이 구체적 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공헌으로 후보자들을 판단해 준 것이 기쁘다"며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내게 위임한 만큼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러시아 연방하원 선거에서 고려인 3세 세르게이 텐이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후보로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주 선거구에서 당선되어 재선에 성공했다.

했다. 2011년 6대 총선 때 역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해 하원 의원에 처음 당선된 텐은 같은 지역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유리 텐(한국명 정홍식) 전 의원의 아들이다. 2003년 부친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그가 운영하던 건설·토목 회사 '트루트'(노동)를 넘겨받아 운영하는 한편 통합러시아당 이르쿠츠크 주 청년 조직 지부장을 맡아 정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트루트는 시베리아와 러시아 남서부의 주요 도로와 공장, 학교, 부두 등

을 건설한 중견 업체로 세르게이는 아버지 못지않게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동시에 2010년 이르쿠츠크 주 주의회 의원에 선출돼 정치인으로서의 발판을 다진 그는 1년 뒤 연방 의원에 당선되면서 중앙 정계로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캐나다 30대 한인 여성 '2016 영 리더'에 선정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30대 한인 여성이 '2016 영 리더' (2016 Class of Young Leaders)에 뽑혔다.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1956년 창설된 비영리재단 '아시아소사이어티'는 미국 최대 규모 아시아계 법률권익단체인 '아시아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에서 지역담당 디렉터로 활동하는 실비아 김(한국 이름 서나경·33) 변호사를 '올해의 영 리더'로 선정했다. 아시아소사이어티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지역 24개 국가에서 유능하고 젊은 지도자 32명을 선정했으며 홈페이지(<http://asiasociety.org>)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인물은 저탄소 경제발전과 기후변화 의제를 관리하는 '글로벌발전자문단'(GDA) 설립자인 막달레나 설 씨도 포함돼 있다. 록펠러 3세가 설립한 이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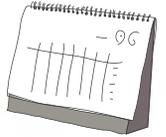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1956년 창설된 비영리재단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선정한 '2016 영 리더'에 뽑힌 실비아 김(한국 이름 서나경) 변호사.

단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홍콩·인도·호주 등지에 10개 지부를 거느리고 있다.

김 변호사는 토론토에서 영화도매상 '비디오앤미'를 운영하는 서동현·김혜숙 씨 부부 사이에 태어났다. 부모 모두 북한 출신이어서 자연스럽게 탈북자에 관심을 뒀고, 토론토의 탈북자 인권단체인 '한보이스'를 설립하는 데 참여했다. 아시아소사이어티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에 앞장서는 그의 공로를 인정해 이번에 '2016 영 리더'에 포함됐다. 유럽북한인권협회 정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김 변호사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중단시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믿고 있다. 아시아소사이어티는 12월 8~10일 서울에서 시상식을 겸한 총회를 연다. **[창]**



‘만주 한인 독립운동 한눈에’… 독립기념관, 선양서 전시회

독립기념관(관장 윤주경)은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국 선양 9·18 역사박물관에서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인 한일투쟁’이란 주제의 ‘공동 국제교류전과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연다. 광복 71주년과 일제의 중국 동북침략 85주년에 초점을 맞춘 행사로, 동북지방 중심지인 선양에서는 처음 공개되는 ‘만주지역 한인의 독립운동’ 전시다. 이 행사에는 독립기념관이 제공한 사진 180여 점과 실물 복제자료 69건 76점, 동영상 4점 등이 전시된다.



민주평통, 3차 해외지역회의… 자문위원 500명 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0월 11~14일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유럽, 아프리카, 중동, 대양주, 러시아 지역 자문위원들을 초청해 ‘해외지역회의’를 연다. 지난 5월 미주지역, 6월 중국·일본·캐나다·중남미 지역 자문위원들이 참가한 데 이어 이번이 3차 회의다. 14개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 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이들은 유호열(사진) 수석부회장의 기조연설, 문화·통일특강을 듣고, 통일부로부터 국정 현황을 보고받은 뒤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다.



“북핵 개발 중단하라”… 프랑스 교민, 파리 북한 대표부서 시위

프랑스 교민 20여 명이 9월 16일 파리에 있는 북한 일반 대표부 앞에서 북핵 반대 시위를 벌였다. 교민들은 ‘북핵 개발 반대’, ‘도발 중단’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최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항의했다. 프랑스 한인회 주도로 열린 이 행사에는 민주평통 남유럽지회, 재향군인회 회원 등이 참가했다.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에서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프랑스 파리에는 북한 대사관이 아니라 이보다 한 단계 등급이 낮은 일반 대표부가 설치돼 있다.



재외동포들 공주대서 3개월간 모국 배우기… “정체성 함양”

미국, 일본, 터키 등 15개국에서 건너온 재외동포 54명이 9월 1일 충남 공주대 한민족교육원에서 정체성 함양을 위한 ‘2016 재외동포 국내 초·중·고교육’에 참가했다. 이들은 국립국제교육원의 위탁을 받은 공주대 한민족교육원에서 11월 말까지 3개월간 한국어·한국사 수업과 한국 문화 체험 행사에 참가하게 된다. 교육원은 한국어 집중, 모국 이해, 대학 진학 준비, 취업(자격) 준비 과정 등 학생들의 수학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분해 운영할 예정이다.



엔타이서 조선족 경제인 대회… 네트워크 구축·상생 모색

중국 조선족 경제인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2016 중국 경제인대회’가 9월 23일 엔타이(煙臺)시 힐튼호텔에서 개막했다. 중국에서 네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중국 전역의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박기출) 23개 지회에서 활동하는 350여 명의 경제인과 다른 지역의 월드옥타 임원 등 총 400명이 참가했다. 월드옥타는 전 세계 71개국 140개 지회를 둔 재외동포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다.



뉴질랜드 평통, 북한 인권 사진전·다큐 시사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질랜드협의회(회장 도연태)는 9월 26일 오클랜드 시내에서 북한 인권 사진 전시회와 북한 실상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열었다. 이틀간 AUT 대학 건물에서 ‘암흑과 절망의 땅’이라는 주제로 열린 사진 전시회에는 요덕 정치범 수용소 인공위성 사진을 비롯해 탈북자가 벌목 노동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한 ‘노예나 다름없는 세상’이라는 그림 등 50여 점이 전시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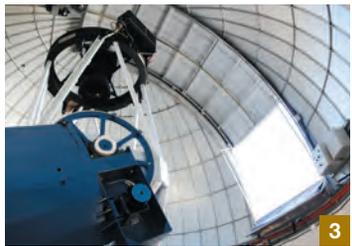
남미 칠레 천문대에서 한국 망원경 지키는 고승원 연구원 “우주 관측에 최고의 명당, 지구인 살 수 있는 외계행성 찾고 싶다”

김지현 | 연합뉴스 중남미 순회 특파원

칠레에 한국이 세운 천문 관측 망원경을 관리하는 한국인 연구원 고승원(29) 씨를 찾아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북쪽으로 500km 떨어진 해안 도시 라 세레나에서 안데스 산맥이 버티는 동쪽으로 50km 정도 가면 고 연구원이 머무르는 CTIO(Cerro Tololo Inter-American Observatory) 천문대를 알리는 표지판이 나온다. CTIO는 ‘톨로로 언덕 범 미주(美洲) 천문대’라는 뜻이다. 표지판과 경비실이 있는 곳에서부터 가드레일이 거의 없는 낭떠러지 옆 굽이치는 비포장 길을 따라 38km를 지나 해발 2천200m까지 올라가야 CTIO 천문대에 도달한다.

8월 24일 천문대에서 만난 고 연구원은 “올라올 때는 저도 아찔할 때가 많다”며 “이곳은 습도가 낮고 매우 건조해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서 쇠붙이를 잡을 때 조심해야 한다. 하늘이 맑아서 자외선 수치도 매우 높다”고 웃었다. 건조한 공기와 쾌청한 날씨는 한국천문연구원 지구 반대편 칠레에 망원경을 설치하고 연구원을 파견한 이유다. 더욱이 칠레가 있는 지구 남반구는 북반구보다 불빛이 적어 우주를 살피기에 더욱 적합하다.

천문대에선 2천여m 아래 세상과 다른 일상이 펼쳐진다. 고 연구원은 “오후 8시부터 본격적인 관측을 시작해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업무가 이어진다”며 “퇴근해서 잠을 자다가 보통 오후 6시에 기상해서 밥을 먹고 관측소로 가서 다시 관측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관측은 한국 대전의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이메일로 요청해오는 우주의 특정 구역이나 목표물을 촬영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천문학적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지점을 후보로 정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른바 ‘서베이 관측’이다. 이곳의 한국 망원경에 장착된 카메라로 찍는 사진은 한 장 용량이 보통 700MB 정도이고 3억2천만 화소에 이르는 등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고 연구원은 또 다른 한국인 연구원 권민경(26) 씨와 일주일씩 교대로 일한



1. 칠레 코킴보 주(州) CTIO 천문대에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의 KMTNet 망원경을 운영하는 고승원 연구원. KMTNet은 외계 행성 관측 시스템을 뜻한다. 2~3. 칠레 CTIO 천문대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은 이곳에 외계 행성 관측 시스템인 KMTNet 망원경을 설치해 한국인 연구원을 파견, 운영하고 있다.

다. 한 주는 밤을 새우며 살다가 다음 한 주는 천문대가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내려가 산티아고 등 대도시에서 들러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휴식한다고 했다.

CTIO는 1960년대 미국이 건설한 천문대로 현재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이곳에 관측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국이 설치한 KMTNet 망원경은 지름 1.6m로 CTIO에서 미국의 지름 4m짜리 ‘블랑코 망원경’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고 한다. 고 연구원은 “CTIO 천문대에서 일하며 외계 행성 프로젝트에 관해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

바른 말 고운 말

| 앗 / 알음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다' 처럼 'ㄹ'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ㄹ'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받침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ㄹ' 받침에 'ㄹ' 을 덧붙여서 '알' 으로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ㄹ' 받침을 가진다는 얘 기입니다. 그런데 '알다' 의 경우는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은 'ㄹ' 을 붙여서 '알' 받침이 있는 '알' 과, '음' 을 붙여서 만드는 '알음' 이라는 두 개의 명사가 있고, 이 두 개의 파생명 사는 그 뜻이 서로 구분되어 쓰입니다. 먼저 '알' 은 지식이라 는 뜻으로 쓰여서 '알은 힘이다' 와 같이 말함으로써 안다는 것, 즉 지식은 힘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알음' 이라 는 말은 사람끼리 서로 아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음 알음으로 사람을 뽑았다' 고 하면 서로 아는 관계를 통해서 사 람을 뽑게 됐다는 뜻이 됩니다. '알다' 의 명사는 '알' 과 '알 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태깅스럽다 우리는 흔히 깔끔하고 맛이 있어 보이는 음 식을 보고 '맛깅스럽다' 고 말합니다. '맛깅 스럽다' 는 말은 '맛' 이 입에 당길 만큼 먹음직스럽다' 는 뜻이지요. '맛깅' 이라는 말은 '맛' 이라는 명사 뒤에 '~깅' 이라는 접미사가 붙 은 것입니다. '~깅' 이라는 말은 겉으로 나타나는 성질이나 기세를 뜻하는 말로 언제나 명사 뒤에 붙어서 본래 명사의 뜻을 명사적으로 만들어 주거나, 뜻을 약간 변화시키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단어로 '때깅, 빗깅, 색깅, 선깅, 태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때깅' 이라는 말은 옷감 같은 것이 눈에 선뜻 비치는 맵시와 빗깅을 뜻하는데, 원래 '때' 라는 말과는 별 관계가 없는 단어가 됐 습니다. 그래서 '때깅이 고운 옷감' 또는 '때깅이 안 좋은 과일' 처 럼 사용합니다. 그리고 '태깅' 이라는 말에서 '태(態)' 는 맵시를 뜻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태깅이 난다' 고 하면 맵시있는 태도가 보인 다는 뜻이지만, '태깅스럽다' 고 하면 교만한 태도가 보인다는 뜻이 돼서 전혀 뜻이 달라집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1. 깔보고 욱되게 함
13. 면도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
14. 물에 적신 수건
18. 공기나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벽이나 지붕에 낸 작은 문
19. 높이 쌓아 올린 대나 터
22. 육안이나 기계로 자연현상 특히 천체나 기상 의 상태, 추이, 변화 등을 관찰해 측정하는 일
25. 적이나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높이 지은 다락집
26. 소방 장비를 갖추고 있는 특수차

12. 목욕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방
13. 세금을 면제함
15.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거나 게으름을 부리 는 짓. 또는 그런 사람
16. 자문에 응해 의견을 말하는 직책을 맡은 관리
17. 절약하여 모아 둠
20. 서류 등을 대신 써주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곳
21.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23. 용변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곳
24. 푸른빛이 그대로 나도록 말린 부드러운 찻잎. 또는 그 찻잎을 우려 낸 물

▶ 오른쪽 방향 열쇠

1. 약보를 그릴 수 있도록 오선을 그은 종이
3. 물을 길어 나르는 데 쓰는 지게. 등태에 긴 막 대기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물통을 달게 되어 있다
4. 임금이 정무를 볼 때 앉던 평상
6.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을 이르는 말
9. 자기 눈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 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 아래쪽 방향 열쇠

1. 오미자나무의 열매. 기침과 갈증 또는 땀과 설 사를 멎게 하는 데 쓴다
2. 분별없이 함부로 날뛰는 용맹
5. 꼬끼리의 이빨. 위턱에 나서 입 밖으로 뿔처럼 길게 뻗어 있다. 악기, 도장 등의 공예품을 만드 는 데 쓴다
7. 신라 때에 둔 화랑의 무리
8. 남의 집에 고용돼 주로 반찬 만드는 일을 하는 여자
10. '심청전' 에 나오는 깊은 물. 사람을 제물로 바 쳐야 배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는 곳으로,

▶ 9월호 정답

정	안	중	근	선	진	국
오	한	고	마	술		
가	차	선	집	문	서	
호	위		장	기	상	
랑	쌈	지	권	총		
이	불	방	광	연	금	
교	장	산	성			의
부	독	사	적	병	환	
친	위	대		표	류	향

할아버지의 전화

김재엽 중국 | 2015 동포문학상 중고등부문 장려상



여름이 되면 나와 동생은 방학을 보내러 한국으로 간다. 선택이 아니라 마치 의무처럼 일상화된 일이다.

가족들을 만나고 모국인 한국을 잊지 않기 위해 1년에 최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갔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좀 달랐다. 짧은 겨울 방학, 봄 방학 그리고 중국의 연휴에도 우리 가족은 여행 대신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이유는 할아버지 때문이었다.

4월 어느 목요일 밤이었다. 우리 집 국제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몇 달 간격으로 어찌다가 울리는 전화기였다. 엄마는 한국에 자주 전화를 걸기에 반대로 집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다. 뭔가 불안한 벨 소리는 나의 잠기운을 모두 날려버렸다.

“따르릉~! 따르릉~!” 나는 허겁지겁 엄마한테 달려가 전화기를 건네주었다. 화장을 지우는 엄마대신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는데 약 몇 초 동안 말없이 점점 얼굴이 굳어져 갔다. 전화를 끊자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 아버지는 엄마와 나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오늘을 넘기기 힘드시데...”

난 아빠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슬픈 표정을 지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보다는 짐작만 할 수 있었다. 사실 위독하다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뒤늦게 그것이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는 의미임을 깨닫고 난 입을 다물고 말았다. 나와 동생은 한국을 간다는 사실만으로 좋아했지만 내 가슴 한 구석은 끊임없이 할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엄마는 최대한 빨리 집을 챙겼고, 나는 눈을 붙이기 위해 내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계속 기도했다. 할아버지가 우리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잘

버텨달라고...

다음날 새벽 6시 쯤 우리 가족은 상하이 공항으로 향했다. 차에서도 내내 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동생을 보며 아직도 어린 아기라고 생각했다. 공항에 도착 후 차 트렁크에서 짐을 빼고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우린 재빨리 비행기가 어느 게이트에서 떠나는지 확인을 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걱정으로 종종 거린 우리는 어느새 한국에 도착했다. 한국과 중국의 상하이는 너무도 다른 듯하다.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공기의 질이다. 중국은 스모그가 너무 심해서 하늘이 가끔씩 회색이나 혹은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미세먼지다.

반면에 아침의 한국 공기는 너무나 깨끗했다. 공항에 있는 표시판의 한글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읽어 내려가며 여기가 한국임을 실감했다. 항상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섰던 공항을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설 줄 몰랐다. 나가자마자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삼촌을 만났지만 할아버지가 누워계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빨리 가야만 한다는 생각에 유리창으로 보이는 광경만 바라볼 뿐...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고 옆에 있는 기계는 할아버지의 심장박동수를 측정하고 있었다. 마치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너무나 초췌한 모습. 이렇게 주름이 많으셨었나 싶은 얼굴. 형광색처럼 너무나도 하얀 핏기 없는 얼굴. 너무 낯설어서 오히려 무서워 보이기가까지 했다.

생명이 위독한 할아버지의 누워 계신 모습과 옆에서 바라보는 초조한 시선들, 심장박동수를 재는 기계의 그래프...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숨 가쁜 할아버지의 숨소리. 항상 나를 보면 웃으며 반가이 맞아주던 그

따사로운 눈길을 느낄 수 없었다. 무엇이든 내편을 들어 주고, 빵을 서랍에 보관했다가 내게 꺼내주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은 온데 간데없어 찾아볼 수도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다.

병원에서 식사 대신으로 간단하게 빵을 먹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기계가 이상한 ‘빡… 빡…’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난 재빨리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고, 아빠도 나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고모는 부리나케 의사를 불렀고 할머니는 점점 커지는 소리로 기도문을 외우셨다.

의사가 와서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단지 기계의 전선 접촉 불량이라고 말한 후 나가셨다. 우리는 다 같이 숨을 크게 내쉬었다. 할머니는 장남인 아버지와 장손인 내가 올 때까지 제발 할아버지가 버텨달라고 밤새 기도하셨다했다.

우리가 병원에 도착해서 약 1시간이 흘렀을 때 의식이 약간이라도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할아버지의 귀에 대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했고 식구들 모두가 다했다 싶었을 때 난 아버지와 함께 다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할아버지 옆에 있던 기계가 다시 ‘삐… 삐…’ 거렸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의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심박동수가 0을 가리키고 있었다. 갑자기 모든 식구들이 할아버지를 소리 높여 부르며 할아버지께로 달려왔다.

난 참았던 눈물을 다 흘려보냈다. 고여 있던 물이 출구를 찾으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처럼 나의 눈물은 거센 강과 같이 흘러 내렸다. 순간 내 머리 속엔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와는 기억, 잊지 못할 추억,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할아버지라는 존재. 솔직히 난 할아버지와 지낸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가끔 한국을 방문해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할아버지는 항상 해외에서의 나의 건강을 염려하셨다. 그리고 나의 외국생활과 내가 다니는 국제학교의 친구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셨다.

그러나 난 할아버지에게 따뜻하고 정 많은 손자가 아니었다. 아무리 남자지만 난 너무 무뎠던 아이였다. 할아버지께 잘 대해드리지 못하고 많은 얘기를 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었다. 또 하나의 스쳐가는 장면도 있었다. 내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중국에 오셨는데 나에게 달리는 방법,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어렸던 나는 자라 중학생이 되고, 그런 건강하고 젊었던 할아버지는 내게 무언가를 더 이상 묻지 못하고 힘없이 눈을 감으신 것이다.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할아버지를 나는 이렇게 잃게 되었다.

할아버지, 우리 학교에는 외국 애들이 많아서 영어로 수업을 해요. 학교 운동장이 대학교처럼 크고요. 우리는 시간표대로 책을 들고 교실로 수업을 들으러 가요. 공부를 못한다고 때리거나 벌을 주지는 않지만 뭔가를 잘못하면 교장실에 반성하러 가요. 놀라시겠지만 중학생부터 댄스파티가 있어서 드레스 입은 여자애들과 부둥켜안고 춤도 춰요…’

나는 장례식장에서 혼잣말을 했지만 할아버지의 깜짝 놀라시는 표정과 재밌어하시는 표정이 허공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중국으로 돌아온 나는 국제전화가 걸려왔던 그 수화기를 들어보았다. 평상시에는 계시다는 것을 잘 못느끼던 존재였는데 막상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할아버지의 모습과 목소리가 그리워졌다. 할아버지의 전화 번호를 눌러 보았다. 바다 건너 할아버지를 찾는 전화를 해도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중국과 한국의 어느 허공에서 신호음만 안타깝게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장**



“재일동포 역사 배웠다” 세계한인차세대 도쿄대회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2016 세계한인차세대 도쿄대회'에는 8개국에서 온 50명의 한인 차세대리더가 참가했다.

전 세계 한인 차세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2016 세계한인차세대 도쿄대회'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도쿄와 닛코(日光)에서 2박3일의 일정으로 열렸다.

일본, 미국, 중국, 독일 등 8개국에서 온 50명의 참가자는 재일동포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차세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10일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를 방문해 6·25 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총훈비를 참배하고, 민단 산하의 탈북자지원센터와 재일한인역사자료관 등을 견학하며 재일동포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배우기도 했다.

배정희 대회 준비위원장은 “도쿠가와 이 에야스는 임진왜란·정유재란으로 단절된 조선왕조와 일본과의 국교 회복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당시 일본이 쇄국정책을 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선통신사를 통해 문화교류를 이어왔다는 것은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해 무엇이 중요했는지 시사해 준다”고 견학 소감을 밝혔다.

미국에서 참가한 그레이스 유(유은경)

변호사는 “해방 후 남겨져 온갖 차별 속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권리를 쟁취해온 재일동포의 역사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들이 모국을 돕는 일에 제일 적극적인 이유가 남다른 민족애에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거주국에서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 각자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유식 민단청년회 회장은 “참가자들은 거주국에서 전문영역을 구축한 실력파들로 진로 문제 등에 고민하는 후배를 위해 멘토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며 “우선 설문조사 등을 통해 후배들의 고민을 파악한 후 전 세계의 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이 조언을 모아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대회를 후원한 오공태 민단 단장은 “차세대 육성은 민단의 최우선 과제”라며 “‘재일’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넓은 시야를 갖도록 앞으로도 차세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인 차세대 인재를 발굴해 국내로 초청하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를 매년 열고 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참가자들이 주축이 돼 거주국에서 자발적으로 여는 행사로, 그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호주 시드니,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고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렸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은 “차세대 리더 여러분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거주국 사회와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전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재외동포 사진전 대상에 ‘동심은 하나’



9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공원에서 열린 2016 재외동포사진전에서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제4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대상으로 뉴질랜드 동포 박현득(67) 씨가 출품한 ‘동심은 하나’를 선정했다.

동포재단은 지난 5월 공모전을 시작해 23개국 501점의 응모작 중 심사를 거쳐 13점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동심은 하나’는 박 씨가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봉사 활동을 펼치며 현지 어린이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직접 찍은 사진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국경을 넘어서 소통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뉴질랜드 동포 정무영(46) 씨의 ‘비상’이 받았다.

이외에도 한국어 수업, 태권도 공연 등 재외동포 삶의 현장을 포착한 작품부터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모국을 알리는 모습을 표현한 사진 11점도 입선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매년 재외동포의 삶의 현상이 담긴 사진이 많이 출품되고 있어 회를 거듭할수록 공모전의 개최 의미가 더해지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진을 통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전체적으로 정감이 간다”고 총평했다

수상작을 포함한 동포 사진 130여 점을 10월 5일에 열리는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9월 23일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 공원에서 일주일간 전시됐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외동포 사진전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살펴보고 내국인의 동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철기 이사장 “동포 역량 키워 평화통일 모색” 강조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9월 22일 “해외를 누비는 동포는 한민족의 자산”이라며 “이들의 역량을 키워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이사장은 세계한상대회와 한인회장대회 등을 앞두고 이날 외교부 담당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720만 명에 달하는 동포가 각국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면서 “이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동포들도 모국의 평화통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이사장은 “동포를 고국으로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를 잇달아 연다”면서 “동포와 내국인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며 한민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주 이사장은 “이들 행사는 국내에 동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기회도 될 것”이라며 “동포가 한국의 외연적 세력이 되도록 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민족적 숙원을 극복하는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지내고 지난 7월 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유라시아 아니셔티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을 포함해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핵을 향한 북한의 의지가 워낙 강한 상황이 근본장애”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압박을 실효성 있게 올려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 개선 압박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새로 들어설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주요 어젠다로 정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전국노래자랑’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KBS 전국 노래자랑 세계대회’ 본선이 9월 4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다.

세계한인의 날 10주년을 맞아 진행된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KBS 전국 노래자랑 세계대회’ 본선이 9월 4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재단은 내국민과 재외동포가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축제 ‘코리아 페이스 티벌-재외동포와 함께하는 KBS 전국노래자랑 세계대회’를 위해 온라인 영상 심사는 물론 지난 8~9월 터키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10개국을 돌며 예심을 진행해 21명의 본선 참가자들을 선발했다.

본선 참가자들은 각자의 숨은 장기자랑과 함께 재외동포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소개하며 자리에 함께 한 관객 모두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본선 진행 결과 브라질에서 온 이시현(30) 씨가 ‘어른 아이’를 불러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물동이 춤으로 좌중을 사로잡았던 안혜령(8세, 선양 서탑조선족학교 2학년) 어린이는 ‘홀로 아리랑’을 불러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국내 가수는 국악인 박애리와 가수 남진, 현철, 김연자, 최유나가 출연해 본선 무대를 더욱 빛내줬다.

이번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KBS 전국노래자랑 세계대회’는 9월 18일 추석 특집편으로 KBS 1TV에서 방영됐다.

한편, 전국노래자랑의 만년 MC인 송해가 출연한 추석 특집기획 다큐 ‘송해, 군함도에서 백두산까지, 아리랑’은 91번째 광복절의 특별한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 당일인 9월 15일 저녁 KBS 1TV에서 방영됐다.

동북아 3국 한인들을 찾아가 아픔을 위로하는 이번 다큐는 중국 연길 항일유적지에서부터 러시아 사할린, 일본 내 한인 강제 이주지와 원폭 피해지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은 지역을 송해 선생이 방문해 그들의 굴곡진 인생과 지나온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삶의 아픔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숯불에 구운 천하일미... 서천 홍원항의 전어 고소한 맛이 절정인 가을 대표 별미



1. 전어는 횡집 수족관에서 2~3일 이상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성질이 급하다. 고기에 가시가 많지만, 육질이 부드러워 씹어 먹기가 좋으며 기름기가 많고 맛이 좋다. 지방질이 많은 가을에 먹어야 참맛을 느낄 수 있다.
2. 9월 24일 전어·꽃게축제가 충남 서천 홍원항에서 열린 가운데 관광객들이 전어잡이 체험을 하고 있다.



모든 생선이 가을에 맛이 오르지만, 가을철의 대표적인 별미로 꼽히는 게 가을 전어다.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를 맡으면 집으로 돌아온다’, ‘며느리 친정 간 사이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 ‘전어 한 마리가 햅쌀밥 열 그릇 줄인다’는 속담을 봐도 그렇다. 주로 서남해안에서 잡히는 전어는 가을에 먹어야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도는 참맛을 느낄 수 있다. 이맘때쯤 전어는 겨울을 나기 위해 몸에 영양분을 저장하느라 지방질이 다른 철에 비해 최고 3배나 더 많아 고소한 맛이 절정에 달한다. 가장 맛 좋을 때가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이고, 15cm 이상 정도의 크기가 가장 맛이 좋다고 한다. 고소하고 담백한 가을 전어 맛에 깊이 빠져들기 위해 사람들은 해마다 9~10월만 되면 충남 서천과 전남 광양, 경남 사천 등 대표적인 전어 산지를 찾는다. 특히 서해안을 따라 움직이면 조그맣고 이름 없는 항에서도 어김없이 전어를 맛볼 수 있다. 그중 충남 서천의 홍원항은 전국 최대 전어

집산지로 손꼽힌다. 춘장대 해수욕장과 동백정 사이 움푹 들어간 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홍원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어잡이 어선들이 분주하게 들락거리고, 성질이 급해 수조에 넣어도 2~3일을 못 넘긴다는 전어를 전국 각지로 운송하기 위한 수족관 차들로 북적거린다. 방파제 끝에는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가 있어 낙조를 배경으로 낭만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기 때문에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각광받고 있다.

홍원항 횡집들은 사람들의 입맛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서천군 앞바다 갯벌은 전어에게 풍부한 영양을 제공해 서천 전어의 맛이 전국에서 으뜸이라고 자랑한다. 전어는 버릴 것이 없다. 비늘만 벗기고 뼈째 썰어서 회나 무침을 하고, 통째로 구워 먹는가 하면, 내장으로 ‘전어밤젓’을 담그기도 한다. 전어회는 비늘과 내장만 제거한 뒤 뼈째 썰은 ‘뼈꼬시’로 먹는데 썰었을 때 살이 단단하면서 불그스름한 빛이 감도는 게 좋다. 먹기 좋게

▶ 서천 흥원항 전어축제



올해 흥원항 전어축제는 9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흥원항 일원에서 열렸다. '전국 최초 전어축제'라는 명성에 걸맞게 해마다 많은 사람이 찾는 서천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이다.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향토적인 볼거리를 마련해 관광객의 눈까지 즐겁게 한다. 전어의 참맛을 느껴볼 수 있는 축제 기간에는 맨손으로 전어 잡기 체험과 추억의 놀이 체험,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비눗방울 놀이, 관광객 전어 썰기 대회, 전어 정량 달기 대회, 전어 구이 시식회 등 전어 관련 체험 이벤트가 펼쳐진다.

▶ 서천군 여행 정보



• 당일 여행 코스

서천 성북리 오층석탑(백제계 석탑양식) → 마량리 동백나무숲 → 흥원항 → 이하복 가옥(조선 농가) → 문헌서원(목은 이색) → 한산모시관 → 이상재 선생 생가터

• 관광 안내

서천군 종합관광안내소(041-952-9525)
서천군 관광마케팅팀(041-950-4256)

• 대중교통

고속버스(서울 남부터미널-서천 버스터미널 2시간 30분 소요)
기차(서울 용산역-서천역 약 3시간 소요)

• 식당 정보

흥원항 더원(010-3116-6812)
흥원항Hits(041-953-3405)



3



4



5

3~4. 전어 요리는 구이가 유명하지만 회나 무침으로 먹어도 맛이 좋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5. 전어구이는 손으로 들고 통째로 씹어 먹어야 제맛이다. 맛깔스러운 구운 전어.

길쭉하게 썬 전어 한 점을 입 안에 넣고 씹으면 처음에는 뽀뽀 씹히다 이내 녹아 전어 특유의 달콤함을 남기고 목으로 넘어간다. 일반적으로 초고추장이나 고추냉이 간장에 찍어 먹는데 된장에 찍어 마른 김과 묵은김치에 싸 먹기도 한다. 보는 것만으로도 입맛을 자극하는 전어회 무침은 새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입안을 감싼다. 무침을 따뜻한 밥에 얹어 비벼 먹으면 순식간에 밥 한 공기 사라진다.

그러나 전어하면 역시 노릇하게 구워낸 전어구이를 빼놓을 수 없다. 구이는 살아있는 것보다 급속 냉동해 놓은 것이 좋다. 활어를 그냥 구웠을 경우엔 살이 부서지기 때문이다. 구이는 전어 몸통에 숟가락집을 넣고 소금을 듬성듬성 뿌린 뒤 통째로 굽는다. 기름이 적당히 빠지면서 고소한 맛의 내장과 부들부들한 살이 잘 어울려 전어 특유의 풍미가 배어 나온다. 먹을 땐 뼈를 발라내지 않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통째로 잡고 뜯어먹는다. 겉은 바삭거리지만 속은 부드럽다. 잘 구워진 전어를 한 입 베어 물면 집으로 돌아오는 며느리의 마음을 알 듯 하다. 횃집 더원의 김중복 씨는 “전어도 다른 생선처럼 씨알 굵은 놈이어야 맛있고 가스보다는 숯불에 구워야 제맛이 난다”며 “일 년을 기다려 천릿길이 멀다 않고 달려오는 마니아들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어스어스 썰어 담은 전어회 한 접시 놓고 소주 한잔 생각나는 계절이다. 가을 여행 겸 서천으로 떠나본다면 먹을거리가 풍성한 여행길이 되지 않을까 싶다. **참**

“한식 영문 레시피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한식 영문 레시피! 코리안 밥상이 코리안넷에서 연재됩니다. 해외에서도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료로, 한식을 만들어 보세요. (코리안밥상의 모든 레시피는 영문으로 제공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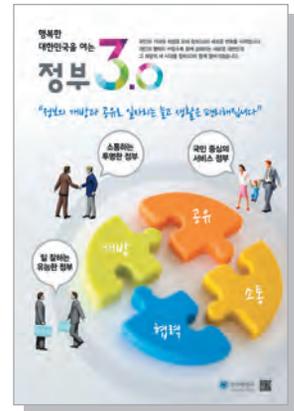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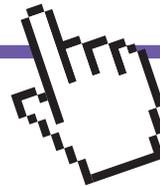
재외동포의 모든것,

KOREAN  NET 으로 통합니다.



재외동포 전문포털 코리안넷

www.korean.net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콘텐츠



주요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



재외동포단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온라인 초청
지원사업 신청



재외동포단체
SNS 서비스



비즈니스 교류
및 정보 제공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2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